

화장교육프로그램이 노인여성의 화장만족도 및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

김정시^{1*}, 김필순²

¹영진사이버대학 뷰티케어학과, ²대구보건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부

The Impact of Make-up Education Program on Elderly Women's Make-up Satisfaction and Self-esteem the Korea

Jung-Si Kim^{1*}, Pil-Sun Kim²

¹Dept. of Beauty Care, Yeungjin Cyber College

²Dept. of Beauty Coordination, Daegu Health College

요약 본 논문은 노인여성을 위한 화장교육프로그램이 화장만족도 및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D시의 P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연령이 60세 이상 되는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8주 동안 화장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전체 80명을 화장관심도와 연령을 근거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40명씩 나누고 중도 탈락자를 제외한 실험군 34명 대조군 36명인 70명이 최종 대상자가 되었다. 화장만족도와 자긍심의 사전 조사 후, 2010년 5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험군에게 화장교육을 실시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검사를 진행하여 사전 사후 화장만족도와 자긍심을 비교하였다. 화장교육의 내용은 고상하고 은은한 화장법의 7가지 화장법을 교육하였고, 이론 및 실습 수업으로 직접 자기 얼굴에 화장하고 배운대로 실천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8주 동안의 화장교육프로그램은 노인여성의 화장만족도 및 자긍심을 유의하게($p<0.05$)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화장과 노인의 건강, 노인 복지 분야의 융합적 접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Key Words** : 노인여성, 화장교육, 화장만족도, 자긍심, 화장교육프로그램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mpact of make-up education program on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make-up and the self-esteem of 80 elderly women. This education was provided during 8 weeks from May 28 to 16 July 2010 to women over 60 who were visiting P seniors' welfare center, in D city. Some people fell out of the research, so finally the experimental group was 34 and the control group 36. During this research seven methods of make-up, including that of light make up were taught to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ing th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levels before and after education. The result was that through the education the levels of their satisfaction with make-up and of their self-esteem were shown to have increased ($p<0.05$), significantly. We hope that through this research old people's healthy living and their social confidence can better converge.

• **Key Words** : Elderly women, Make-up education, Make-up satisfaction, Self-esteem, Make-up education Program

*교신저자 : 김정시(kijuci@naver.com)

1. 서론

노화로 인해 변화되는 노인들의 외모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화는 피부색의 변화와 색소침착, 주름의 증가, 탄력저하로 인해 얼굴 윤곽도 변화시킨다. 이러한 얼굴의 변화는 우울한 기분을 느낄 수 있으며[1] 아름다움의 저하로 자신감과 삶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2].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노인층의 증가가 빠르다는 점과 남성보다 여성이 외모에 대한 불만족이 더 많은 편이라는 점을 볼 때 노인여성의 외모관리는 중요하다. 외모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관리는 노인들의 자긍심과 삶에 대한 만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3]고 하였다.

화장교육프로그램은 매력에 없는 외모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손상 및 부수적 심리적 손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중요하다[4]. 여성이 화장을 하지 않았을 때와 화장했을 때의 호감 정도를 평가한 논문을 보면 화장을 한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5], 이는 화장이 여성의 자각적인 매력과 여성성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음을 나타낸다.

화장만족도는 개인이 자기 화장에 대해 느끼는 만족 정도를 의미하며, 자신의 화장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노인여성의 외모의 향상에서 화장의 역할은 잠재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특히, 매력적이지 않은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6] 할 수 있다. 또한 화장은 여성의 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 화장 후에는 우울감을 감소시켜주어 사회적 불안감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7].

자긍심은 각 개인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 삶에 필수적인 것이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자긍심이 높을수록 직업이나 재정적인 면, 일상적인 삶에서도 정서적, 창의적, 정신적으로 풍부하다 하였다. 노년기의 자긍심 저하는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8], 자긍심은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9]고 하였다. 화장은 자신의 자긍심 회복과 이미지의 개선에 크게 기여하며,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부정적인 정서는 감소한다[10,11]는 점을 볼 때 화장을 통한 노인여성의 이미지 개선은 그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화장태도, 화장 행동에 대한 연구, 화장이 여성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12], 여성노인의 심리적인 복지감에 화장이 미치는 영향[13], 헤어, 네일, 피부관리, 화장 등으로 구성된 미용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14]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화장교육을 통한 노인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나 노인여성을 위한 화장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노인여성을 위해서 외모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화장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여 그 효과를 증명하고 노인여성에게 성공적인 노년생활을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건강과 복지와의 융합적 접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노인여성에게 화장교육을 실시하여 화장만족도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 설계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2.1.1 사전 설문조사

사전 예비설문을 실시하여 이해도가 낮거나 중복되는 문항은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0년 5월 28일 D시에 위치한 P노인복지관을 이용하며 연령이 60세 이상인 노인여성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화장교육 참여를 동의한 80명 중에서 화장 관심도, 연령을 근거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 40명씩 나누고,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일반적 특성과 화장특성, 화장만족도, 자긍심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의 기입방법은 자기 기입식으로 시력이 낮거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는 직접 설문문항을 읽어주어 기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5개 문항, 화장의 특성 5개 문항, 화장만족도 16개 문항, 자긍심 1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1.2 화장교육프로그램 실시

화장교육은 본 연구자와 보조강사가 함께 진행하였고 실험군 40명에게 2010년 5월 28일부터 2010년 7월 16일까지 8주 동안 교육 하였다. 주 1회 60분간 교육하며, 이

론 15분과 실기 45분으로 진행하였고, 매회 교육 시 교육의 목적을 상기시키고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의견을 물어 다음 교육에 반영하였다. 대조군 40명은 화장교육 참여 없이 전후 설문조사만 실시하여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2.1.3 사후 설문조사

화장교육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교육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험군과 대조군의 화장만족도와 자긍심을 재조사하였고, 실험군에게는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만족도 문항은 6개로 구성하였다. 화장교육이 진행되는 중에 교육 참여율이 낮은 실험군 6명과 대조군에서 중도에 탈락한 4명을 대상자에서 제외한 70명을 연구의 최종 대상자로 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화장만족도 측정 도구

배주윤[15], 송은영[16]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참고하여 본 논문에 맞게 수정 보완한 화장만족도 세가지 하위 영역 대인관계활동 영역 5개 문항(1,2,3,4,5), 자기만족 영역 5개 문항(6,7,8,9,10), 심리적 효과 영역 6개 문항(11,12,13,14,15,16)으로 총 16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심리적 효과의 부정적인 문항(17)은 역환산하여 사용,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화장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2.2 자긍심 측정 도구

Rosenberg[17]가 개발한 자긍심 척도를 Jon [18]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Rosenberg[17]가 개발한 자긍심의 척도는 긍정적인 5개 문항과 부정적인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여성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문항을 수정하여 긍정적인 6개의 문항(1,2,4,6,7,8)과 부정적인 4개의 문항(3,5,9,10)으로 구성하였다. 부정적인 문항(3,5,9,10)은 역 환산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긍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2.3 화장교육의 구성

이 연구의 화장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은 자가 미용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김보경의 연구[14]와 심리치료를

미용을 활용하기 위해 자가 미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김영란의 연구[19]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 후 노인여성을 위한 화장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성하게 되었다.

교육내용으로 제 1주는 고상하고 은은한 화장법, 제 2주는 유행하는 동안 화장법, 제 3주는 얼굴 수정 보완 화장법, 제 4-6주는 계절별 화장법, 제 7주는 한복 화장법, 제 8주는 특별하고 과감한 화장표현법으로 이론과 시범, 실습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1회 교육시간은 60분으로 매회 일관되게 진행하였다.

2.3 분석 방법

화장만족도와 자긍심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사전 조사를 하고, 실험군에게 8주 동안 화장교육을 실시한 후, 각각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사전 사후 비교분석을 통해 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는 SPSSWIN 17.0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다음은 구체적인 분석 방법이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화장의 특성은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둘째, 실험군과 대조군 각 집단의 화장만족도와 자긍심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서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화장교육 참여 전후의 화장만족도와 자긍심의 비교 검증은 paired sample t-test로 하였다. 집단에 따른 교육 전후 실험효과 차이 검증은 교육하기 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해 ANC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실험군을 대상으로 화장교육 후의 교육만족도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화장만족도와 자긍심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계수로 표시하였고, 화장만족도 측정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0.839, 자긍심은 0.763으로 신뢰성이 검증되었다<Table 1>.

<Table 1> Organisation of the research scales and its reliability

Variable	Contents	Number of questions	Scale	Cronbach' α
	Total			
Satisfaction with make-up	personal relations	16	5	0.839
	self esteem	5	5	0.760
	psychologic	5	5	0.614
	al effect	6	5	0.762
Self-esteem		10	5	0.763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특성

3.1.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구에 참여한 최종 대상자는 총 70명으로 대조군은 36명, 실험군은 34명 이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많았고, 가족형태로 배우자와 동거가 많았으며, 생활형편은 보통 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실험군 88.2%, 대조군 86.1%로 많았다. 외출의 빈도는 실험군, 대조군 모두 대체로 높았고, 건강상태는 보통 또는 건강한 편으로 응답비율이 대체로 높았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동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2> Personal details

	Total	Experi- mental group	Control group	χ^2
Ages	60~64	8(11.4)	5(13.9)	1.987
	65~69	35(50.0)	16(44.4)	
	70~74	20(28.6)	10(27.8)	
	75~79	7(10.0)	5(13.9)	
	means±SD	68.71±3.65	68.92±4.92	
Family situation	Living with partner	39(55.7)	21(61.8)	5.349
	Children	9(12.9)	3(8.8)	
	Living alone	15(21.4)	9(26.5)	
Life style	Poor	6(8.6)	2(5.9)	0.960
	Average	61(87.1)	30(88.2)	
	Rich	3(4.3)	2(5.9)	
frequency of going out	1-2 times a week	8(11.4)	2(5.9)	3.042
	3-4 times a week	31(44.3)	18(52.9)	
	Almost every day	31(44.3)	14(41.2)	
state of health	Not too healthy	13(18.6)	4(11.8)	2.038
	Average	30(42.9)	16(47.1)	
	healthy	27(38.6)	14(41.2)	
Total	70(100.0)	34(100.0)	36(100.0)	

3.1.2 연구 대상자의 화장특성

<Table 3>의 화장특성에서 실험군, 대조군 모두 화장 교육 경험이 없었으며, 화장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높았고 대체로 노인여성들은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피부, 눈썹, 입술부위의 색조화장은 거의 모든 대상자가 하고 있었고, 외출할 때는 꼭 화장을 하며 화장 실력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는 대상자가 많았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화장특성은 동질하였다.

<Table 3> Personal make-up details

	Total	Experi- mental group	Control group	χ^2
Make-up study	No	61(87.1)	29(87.9)	0.017
	Yes	8(11.4)	4(12.1)	
importance of make-up	Unimportant	1(1.4)	1(2.9)	1.361
	Average	10(7.0)	4(11.8)	
	Important	59(84.3)	29(85.3)	
Color make-up	Yes	67(95.7)	33(97.1)	0.291
	No	3(4.3)	1(2.9)	
Frequency of color make-up	All the time	12(17.9)	5(15.2)	0.305
	Always when going out	35(52.2)	17(50.0)	
	Sometimes when going out	20(28.6)	11(32.4)	
Make-up skill	Little skill	23(34.3)	11(33.3)	2.124
	Average	42(62.7)	22(66.7)	
	Rather skilled	2(3.0)	-	
	Total	70(100.0)	34(100.0)	

3.1.3 화장만족도, 자긍심의 동질성 검증

<Table 4>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화장만족도, 자긍심의 동질성을 검증한 것으로 두 집단은 모든 항목에서 동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Table 4> Test of the cor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with make-up and self esteem

	Experi- mental group	Control group	t
Satisfaction with make-up	3.52±0.40	3.57±0.42	-0.483
personal relationship effect	3.65±0.52	3.67±0.56	-0.152
satisfaction	3.40±0.50	3.45±0.44	-0.445
psychological effect	3.51±0.51	3.58±0.51	-0.549
Self-esteem	3.77±0.47	3.58±0.46	1.684

3.2 교육효과 검증

3.2.1 화장만족도의 교육효과 검증

<Table 5>는 화장만족도 효과 검증 분석 결과이다. 화장만족도는 실험군이 3.4에서 3.7로 유의하게 증가되었고(p<0.001), 대조군은 3.6에서 3.6으로 변화가 없었다. 화장만족도 하위영역에서 모두 유의한 증가가 있었는데 대인관계활동 영역은 실험군에서 3.7에서 3.8로 증가하였고(p<0.05), 자기만족감 영역에서는 3.4에서 3.6으로 증가되었으며(p<0.01), 심리적 효과 영역에서는 3.5에서 3.7로

증가되었다($p < 0.05$). 대조군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지 않았다.

집단 간 차이에서는 화장만족도 중 자기만족감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5$). 화장교육프로그램은 화장만족도의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Table 5〉 Comparison of satisfaction with make-up before and after education in each group

	Groups	Before education	After education	t	F
total	Experimental group	3.52±0.39	3.74±0.38	3.880***	4.095*
	Control group	3.57±0.42	3.57±0.48	0.061	
personal relationship effect	Experimental group	3.65±0.52	3.82±0.43	2.136*	2.026
	Control group	3.67±0.56	3.69±0.51	0.325	
Satisfaction	Experimental group	3.40±0.50	3.64±0.45	3.469**	5.013*
	Control group	3.45±0.44	3.41±0.56	-0.368	
Psychological effect	Experimental group	3.51±0.54	3.74±0.41	2.709*	2.172
	Control group	3.58±0.51	3.61±0.57	0.229	

* : $p < 0.05$, ** : $p < 0.01$, *** : $p < 0.001$

3.2.2 자긍심의 교육효과 검증

〈Table 6〉은 자긍심의 효과 검증 분석 결과이다. 자긍심은 화장교육프로그램 실시 전후 실험군이 3.8에서 3.7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대조군은 3.6에서 3.4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p < 0.05$). 집단 간 차이에서 대조군의 자긍심은 교육 전보다 유의하게 낮아진 것에 비해 실험군은 적게 낮아져 교육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Table 6〉 Comparison of self-esteem before and after education in each group

	Groups	Before the education	After the education	t	F
Self-esteem	Experimental group	3.77±0.47	3.72±0.45	0.803	4.877*
	Control group	3.58±0.46	3.44±0.41	2.197*	

* : $p < 0.05$

3.3 화장교육 만족도 평가

화장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에게 향후 재교육 시 참여 의사, 타인에게 화장교육의 권유도, 화장 실천 여부 등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Table 7〉. 조사 결과는 백분율로 환산하였으며, 화장교육에 대한 교육 참여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Table 7〉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make-up education

	Responses	Number	%
Positive or Negative intention	Yes	34	100.0
	No	-	-
Proposal of education	Yes	34	100.0
	No	-	-
Putting into practice	Yes	34	100.0
	No	-	-
Enjoyment of make-up education	Yes	33	97.1
	Medium	1	2.9
	No	-	-
Satisfaction with make-up	Yes	31	91.2
	Medium	3	8.8
	No	-	-
Total		34	100.0

4. 고찰

본 연구는 노인여성이 화장의 즐거움을 느끼고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화장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화장교육을 실시하여 화장교육프로그램이 노인여성의 화장만족도 및 자긍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 하였다. 화장교육 내용은 제 1주는 고상하고 은은한 화장법을 통해 자신이 가진 얼굴의 장점을 살리도록 하였고, 제 2주는 유행하는 동안 화장법으로 젊게 보이는 화장법 및 제품 활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고 젊게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제품에 대한 애착도 높았다. 제 3주는 눈썹과 눈, 입술 등 처지고 주름진 얼굴을 수정 보완하는 화장법을 교육하였는데 특히 눈꺼풀이 처져서 시야를 가리거나 미용상 고민인 경우 쌍꺼풀 테이프를 이용하여 처진 눈을 보정하였다. 제 4-6주는 계절별 어울리는 컬러 화장법, 제 7주는 한복 착용 시 잘 어울리는 화장법, 제 8주는 평소에 해 보기 힘든 길은 입술 컬러 표현 또는 인조속눈썹을 활용하여 화장을 함으로써 화장 자체의 재미와 즐거움과 새

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행하는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노인여성의 얼굴특성에 맞는 화장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한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노인여성의 화장에 대한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삶의 재미와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도움을 준다고 생각된다.

Cash 등[20]은 화장을 한 여성이 하지 않은 여성보다 타인에게 더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외적으로 더 매력적인 여성으로 평가되었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원과 사회활동은 노인들의 잠정적 질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자긍심과 심리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며[21,22], 심리적 행복감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23] 화장행위의 실천은 정신적인 면에 도움을 주므로, 노인을 위한 화장교육은 노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Graham과 Kligman[24]은 매력적인 노인은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삶에 더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의 장점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계속 되고 있으며, 화장은 매력적이지 않은 노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아인식과 인상적인 이점들의 관점에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밝히고 있다.

화장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결과 화장교육은 교육 전보다 노인여성의 화장만족도를 향상시켰고 자긍심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화장만족도 중 자기만족감이 향상되었다. 화장만족도는 자긍심과 상관성이 높았는데 화장만족도를 높이면 자긍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의 결과는 김보경[14]의 연구와 같이 노인여성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진희, 한보현[12]의 연구에서 화장은 노인여성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며, 전상남, 신학진[25]의 연구에서 외모차별은 노인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노인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노인차별의 경험은 적게, 성공적 노화는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노인의 외모는 노년의 삶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화장을 통해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자긍심을 높여 성공적 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장교육에 참여한 노인여성들은 다음 기회에도 꼭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였으며 새로운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젊은 여성 못지않게 많았다.

그리고 교육 중에 서로의 외모에 대해 비교하고 피부가 좋거나 얼굴이 예쁜 경우 부러움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집단 화장교육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현실적인 신체이미지와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타인과의 비교로 인하여 개인의 외모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교육을 실시할 때 강사는 교육생들에게 외모가 향상되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교육생들로 하여금 서로 외모를 칭찬해 주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 화장교육을 받는 기간도 길수록 이미지 변화에 대한 지각이 분명해 질 것이므로 더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의 화장교육은 노인여성이 외모의 변화를 지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화장 후 변화된 모습을 촬영하여 보여주는 등 시각적 자극이 계속해서 주어지도록 하며, 평소 색조화장을 생활화 하도록 하되 피부화장, 눈 화장, 눈썹, 볼터치 등 여러 단계를 행하도록 지도하고 세심하게, 자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며 특히, 처지고 주름진 부분의 수정 화장으로 젊어 보일 수 있는 화장법을 중점적으로 장기간 교육한다면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갖고 자긍심에 더 큰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노인여성을 위한 8주간의 화장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화장만족도와 자긍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 하였다. 8주 동안의 화장교육이 끝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화장만족도와 자긍심의 교육 전후 비교로 화장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 교육 후 집단 간 비교에서 실험군은 화장만족도가 유의하게 향상되었고($p < 0.05$) 특히, 화장만족도 중 자기만족감이 향상되었다. 자긍심은 대조군이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나($p < 0.05$) 실험군은 변화가 거의 없어 교육의 영향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8주 동안의 화장교육은 화장만족도와 자긍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여성들의 꾸준한 화장 실천으로 외모의 긍정적 변화의 즐거움을 느끼며 젊어 보이고 자신감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노인복지 시설에서 노인여성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화장교육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단일지역의 특정 장소에서 모집된 대상이므로 일반화 등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향후 화장과 노인의 건강, 노인 복지 분야의 융합적 접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Kim, J. S., Min, K. J., "The Effect of Make-up Education on Elderly Women'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 4, pp. 1749-1755, 2011.
- [2] Gupta, M. A., Gilchrest, B. A., "Psychosocial aspects of aging skin", *Dermatologic Clinics*, Vol. 23, pp. 643-648, 2005.
- [3] Kim, H. H., Kim, Y. S.,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Face and Make-Up Behavior According to Lifestyles of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 57, No. 5, pp. 99-111, 2007.
- [4] Graham, J. A., Jouhar, A. J., "The importance of cosmetics in the psychology of appearance", *International Society of Tropical Dermatology*, Vol. 22, No. 3, pp. 153-156, 1983.
- [5] Cox, D. L., Glick, W. H., "Resume evaluations and cosmetics use: when more is not better", *Sex Roles* 14, pp. 51-58, 1986.
- [6] Graham, J. A., Kligman, A. M., "Physical attractiveness, cosmetic use and self-perception in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Vol. 7, No. 2, pp. 85-97, 1985.
- [7] Cash, T. F., Dawson, K., Davis, P., Bowen, M., Galumbeck, C., "Effects of cosmetics use on th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body image of Ame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29, No. 3, pp. 349-355, 1989.
- [8] Choi, Y. A., "A Survey on the Depression, Self-esteem and Health Behavior of the Aged" ,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 pp. 27-47, 2003.
- [9] Kim, Y. A., "The influence of leisure counseling program on the age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00.
- [10] Leider, M., Braver, E. W., "Basic skin care and cosmesis for the chronically ill, the mentally disturbed, and the aged infirm", *Journal of Dermatologic Surgery and Oncology*, Vol. 7, No. 6, pp. 455-459, 1981.
- [11] Shin, H. Y., Lee, I. J., "Effect of the Fashion Therapy for the Psychiatric Patients (Part 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24, No. 7, pp. 1088-1099, 2000.
- [12] Lee, G. H., Han, B. H., "The Influence of make up for elderly women's depression",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Vol. 10, No. 2, pp. 57-65, 2012.
- [13] Lee, W. J., Kim, J. O., "A Study on the Effects of Mak-up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Elderly Wom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8, No. 2, pp. 45-60, 2003.
- [14] Kim, B. K., "A Self-Beauty Program's Effect on Female Senior Citizens' Depression, Self-Respect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 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2007.
- [15] Bae, J. Y.,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tisfaction of applying make-up and interpersonal rel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3.
- [16] Song, E. Y., "A study on influence to make-up for improvement of face image within professional women in Jeju reg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5.
- [17] Rog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18] Jon, B. 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Publications*, Vol. 11, No. 1, pp. 107-129, 1974.
- [19] Kim, Y. R.,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lf-Beauty Program for Beauty Psychological Therap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kyeong University, 2010.
- [20] Cash, T. F., Dawson, K., Davis, P., Bowen, M., Galumbeck, C., "Effects of cosmetics use on th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body image of Ame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29, No. 3, pp. 349-355, 1989.

- [21] Kim, H. S., Sin, H. S., "A Study on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3, No. 3, pp. 66-73, 1995.
- [22] Krause, N.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in an elderly population", *Psychology and Aging*, Vol. 2, No. 4, pp. 349-356, 1987.
- [23] Oliva, A.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health among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Vol. 33, pp. 1053-1068, 2007.
- [24] Graham, J. A., Kligman, A. M., "Physical attractiveness, cosmetic use and self-perception in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Cosmetic Science*, Vol. 7, pp. 85-97, 1985.
- [25] Jeon, S. N., Shin, H. G., "Effects of elder's image on successful aging",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Vol. 26, pp. 165-187, 2009.

저자소개

김 정 시(Jung-Si Kim)

[정회원]



- 2006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뷰티코디네이트 디자인학과 (미술학석사)
- 2011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공중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11년 12월 ~ 현재 : 영진사이버대학 뷰티케어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보건미용, 건강, 패션

김 필 순(Pil-Sun Kim)

[정회원]



- 2006년 8월 :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 2010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공중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12월 : 대구한의대학교 한방피부미용학과 겸임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 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보건미용, 건강, 패션